

투데이 칼럼

코멘트 스피치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스피치와 이미지, 감성과 표현을 중요시하는 시대에기에 한 순간에 한마디로 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은 그 사람의 매력이자 경쟁력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다른가?' 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능력으로 '모방력(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따라하여 자기 실력을 키우는 능력)', '순서력(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 '코멘트력(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 등이 압축된 말하기 능력)'을 말한다.

이 세가지 중 중앙인이 서양인에 비해 뒤지는 것이 코멘트력이다. 서양인은 스스로 대화를 주도하며 유머를 섞어가며 의견을 말하기에 부드러우면서 강한 인상을 준다. 반면 동양인은 예의와 겸손을 중시하는 전통적 화법에 익숙한 탓에 자유로운 표현이 약하다.

코멘트력을 키우는 4가지는 첫째, 자신의 코멘트를 메모한다. 코멘트는 문장으로 1~2행정도, 인터넷이라면 5~10초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므로 하나의 표어처럼 상대



김양욱

한국 스피치 리더십

의 폐부를 날카롭게 꿰뚫는 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감상평을 한 두 마디로 요약해 보는 것이 좋다. 말로 중얼거리고 나면 허공에 날아가 버리므로 연습효과가 적기 때문에 꼭 주요 키워드를 글로 적어가면서 능력을 갈고 닦길 바란다.

둘째, 맛을 표현한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말을 준비해두면 꽤 쓸모가 있다. 개성 있는 말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으면 대화를 풀이 가기가 한결 쉽다.

셋째, 후속타를 생각하며 대화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거나 무엇을 보고 있는 중간 중간에 미리 자신의 코멘트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질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넷째, 요약하지 말고 코멘트 할 공리를 한다. 코멘트란 본래 요약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좋은 코멘트를 전제로 요약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말한 것을 생각하는 과정이 훨씬 창조적이고 지적능력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관점이 다르면 코멘트는 달라진다.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코멘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째, '인신공격성 발언'이다. 선 표현, 독설을 주고받아야 할 때 실수를 간혹하게 된다.

둘째, '실연'이다. 말이란 엄연히 '아' '다르'고 '이' '다르'데 그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과 상황에 맞는 말을 여유를 갖고 말한다.

셋째, '둘러대기'이다.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다. 진실이 드러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도 성별, 나이, 학력, 재력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말도 삼가야 한다. 상대를 깎아 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말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격 수준만 의심받게 한다.

어디까지나 코멘트는 음식의 품격을 더하는 향신료이다. 향신료를 치기 전 정성을 기울여야할 대상은 본래 음식의 맛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가 감탄하고 감동하고 열광하는 코멘트는 언제나 진실 된 말이다. 정직한 말은 정곡을 찌르고 진실 된 말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모두 명코멘트 스피치로 감동을 주고 상호 이해하는 사이가 되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명랑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보자.

사설

전북도는 대도약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전북도가 순창군을 필두로 각 시군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대도약 행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어찌 처음부터 미덥지 않다.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면 난맥상이 여기저기 도드라져 있는 까닭이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게 잘 안될 것 같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제3공용 중심도시 지정 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외부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고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리고 임실군의 폐기를 처리 건도 그렇다. 법정 소송으로 장기화될 조짐이다. 며칠 전만 해도 곧바로 해결할 것처럼 요란스러웠는데 통탄할 일이다.

전북도의 대도약 행보는 반듯해야 한다. 보도용 행보여서는 안된다. 발전 현안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렇다.

과거처럼 눈치보기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말고라며 뒤로 물러나 주춤거리선 안된다. 그래서 지난날 여러 번 말했던 것을 또 말하고자 한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합법 때이다.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기류가 세다고 해서 기가 죽어선 안 된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힘차게 밀어부쳐야 한다. 군산 경제가 무너졌는데도 여태 제몫을 챙기지 못하고 있음은 의지가 강고하지 못한 탓이다. 전북도는 발전의지를 말로만 표출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도민의 관심사인 새만금 사업도 그렇다. 지난 수년 간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이 미미하다.

그나마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별로이니 실로 유감이다. 보다 넓게 참여 기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이다. 큰 일거리마다 외지업체가 쟁쟁히 먹고 있는 것 또한 통탄할 일이다.

전북도는 대도약의 주축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터이다. 발전 사업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마뜩치 않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당부할 것이 있는데 전북도는 강해져야겠다. 도내에서 어찌구무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오염 토양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장기화 되면 임실군의 해당 지역이 더욱 오염될 게 뻔하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 잘 때가 되고 있는가

전북형 일자리 진척이 어찌 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말이다. 도지사는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말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던 적이 있다. 그게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세운 것이며 17개 과제 대상을 이야기한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을 도입하려 했던 것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던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정부가 그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23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정일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각성해야 한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무언가 2% 부족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까닭이다.

전북도가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지만 젊은이들의 불만 소리가 여전히 울려다지고 있다고 말할 것과는 반비례하여 관청은 일자리가 적은 탓이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부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번 말했던 바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 쪽으로 많은 일자리를 쟁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이 전북도에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정을 가져야 한다. 실력발휘를 해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 취업자들도 관청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원하고 있다.

본보는 도내 근로자의 40%가 넘게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할 바 있다. 전북도는 취직 자리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전북형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더 애를 써야만 한다.

독자제언

신학기 학교폭력 애정과 관심으로 예방

봄과 함께 시작되는 설렘 가득한 신학기, 새로운 친구들과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 시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학기인 매년 3~4월은 학교폭력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 및 결손가정 증가로 커진 가정의 무관심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설마 내 자녀에게 뭘 일 있었어?' 라는 반성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다. 민약 자녀들이 이유 없이 등교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경우, 평소와 다르게 용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학교폭력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자

녀들과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간혹 친구들과의 싸움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폭력은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해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와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가 단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하는 '사이버감옥', 다른 학생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빼앗는 '와이파이 셔플' 등 새로운 방식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애정과 관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단 한번 뿐인 학창시절이 누군가에게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이 되지 않길 바란다.

백요셉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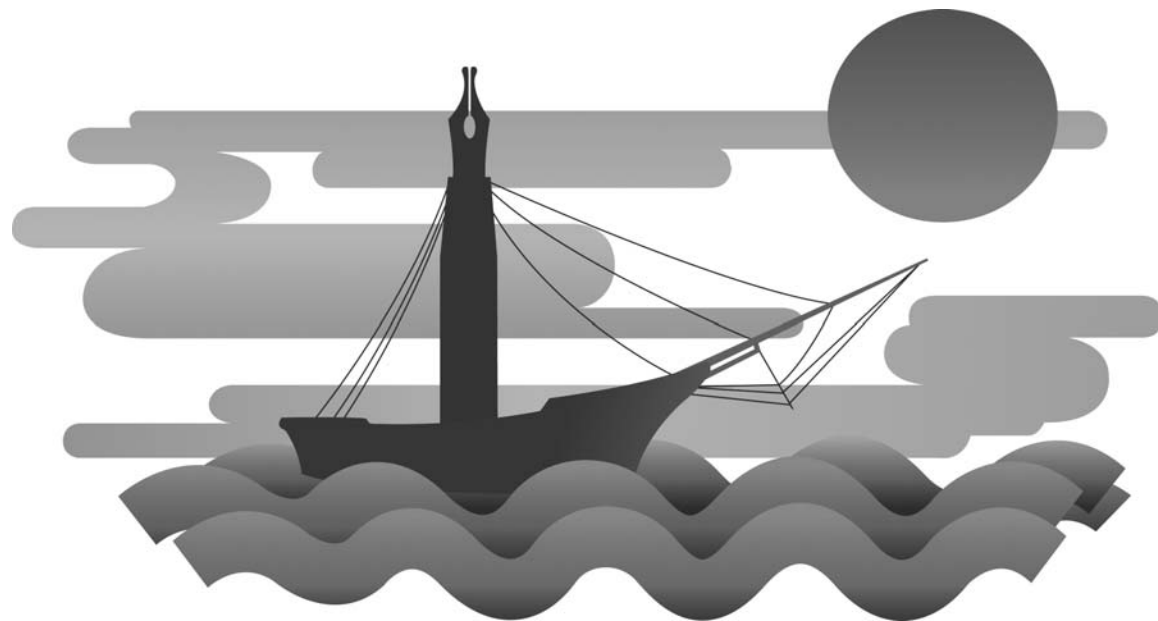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발뮤인 열차에서 '탈출' 한 승객들



26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유진역에서 암트랙 열차에 묶여 있던 승객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사고 열차에서 나오면서 기뻐하고 있다. 승객 183명을 태우고 시애틀을 출발해 LA로 향하던 암트랙 열차가 오리건주 유진 부근에서 폭설로 선로에 쓰러진 나무를 들이받으며 눈 내린 산악 지대에 36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